



왜당귀 / *Angelica acutiloba* (Siebold & Zucc.) Kitag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당귀속 |

| | |
|------|---|
| 과국명 | 산형과 |
| 과명 | Umbellifer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산형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한다. 분포지역 : 우리 나라 각처에서 재배한다. 형태 : 여러해살이풀 크기 : 높이 60~90cm이다. 꽃색 : 백색 개화기 : 9월,8월</p> <p>뿌리에서 난 잎과 밑부분의 잎은 잎자루가 길고 털이 없다. 잎은 세모 모양이며 3개씩 1~3회 깃털 모양으로 갈라진다. 잎자루의 밑부분은 긴 잎집이 된다. 작은 잎은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으며 깊게 3개로 갈라진다. 잎 겉면은 초록색으로 윤기가 난다.</p> <p>꽃은 8~9월에 피고 하얀색이며 줄기 끝과 가지끝의 겹우산모양꽃차례에 달린다. 꽃차례의 큰 줄기의 윗부분과 작은 줄기 및 꽃자루의 안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다. 작은 줄기는 30~40개가 있다. 작은 총포는 실처럼 가늘다. 열매는 연한 붉은색의 장과이며, 평평하고 긴 타원 모양이다. 뒷면의 모서리진 선은 가늘며 가장자리에 좁은 날개가 있다.</p> <p>줄기는 곧게 자라며 잎자루와 더불어 검은빛이 도는 자주색이다. 전체적으로 털이 없다.</p> <p>토당귀보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며 물빠짐이 좋은 곳이나 모래와 찰흙이 알맞게 섞인 땅, 또는 이보다 조금 더 수분이 많고 끈끈한 땅이 재배에 적당하다. 씨앗으로 번식시키는데, 너무 건조하지 않은 곳에 저장해야 한다. 원래 일본이 원산지이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어온 후 토당귀 대용으로 사용되었다. 풀 전체에 특이한 향이 있다.</p> |